

仁川直轄市支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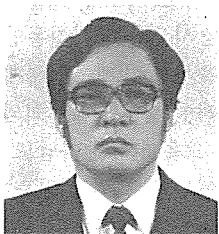
지부장 인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1985년을 맞이하여 각지부순례단을 신설하여 인천직할시지부를 소개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본인은 인천직할시지부 제2대 지부장으로 취임하여 동분서주 하다 보니 벌써 임기말년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앞으로 1년간 運營方針을 말씀드린다면 지난 1년과 같이 올해에도 회원의 권익보호 및 신장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우호를 돈독히 함은 물론 상호화합 단결하는 기반조성에 더욱 역점을 두겠습니다.

기간 우리 건축사 여러분들이 일부 물지각한 업자나 인식부족한 건축주에 휘말리어 우리에게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건축사로서 성실의 의무와 전문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면서 상호간에 협동한다면 해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부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은 을축년 소의 해입니다. 능률한 소의 발걸음과 같이 쉬지않고 힘차게 지부발전을 위하여 전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성장과정

본 대한건축사협회 인천직할시지부가 설립되기 이전의 仁川은 京畿支部의 仁川分所였다. 인천개항 100주년 이전의 조그마한 포구와 같았던 바와 같이 인천분소는 몇사람 안되는 회원이 뭉쳐져 인천지역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었다. 1965년도에 경기지부가 설립되면서 인천에 지부사무소를 두게 되었으며 1970년에는 지부사무소를 경기도청이 소재해 있는 수원으로 옮겨가게 되어 동년에 인천분소가 설치되게 되었으며 당시 朴昌俊(現第一建築) 회원이 初代分所長을 始發로해서 지금은 故人이 된 몇분의 회원이 인천건축문화의 맥을 이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支部長 高昌永

인천이 인천직할시로 승격(1982. 1. 1일) 됨에 따라 본회정관개정이 총회에서 승인되어 故 劉南烈회원의 16명회원의 명의로 총회소집요구를 하여 본회로부터 승인통보를 받고 1981년 11월 23일 40명의 회원이 성원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당시 초대 지부장에는 金晶洙(現 時代建築) 회원 간사 李秉武 간사 金榮培 3명의 지부임원을 선출하게 되었고, 高昌永, 高宗旭 2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여 본회 임원승인신청을 하여 1981년 12월 18일자로 승인통보를 받아 1982년 1월 1일 건설부장관의 정관개정승인하에 본 인천직할시지부로서의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으며 이후 분소 사업소였던 인천시 남구 송의동 161의 15에서 지부사무소로서는 대외적인 체면을 유지할 수 없는 창고와 같은 사무실이었으며 비가 오는 날이면 사무소 벽체에 물이 스며들어 바닥이 흥건히 젖으리 만큼 어려운 점이 있었다. 회원 이래빠야 근 40여명이었지만 회의를 개최할시는 지부사무소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지금에 말하는 반상회식으로 회의를 여는 등 불미스러운 점이 많아서 인천시 남구 주안동 989-2인 현 사무소에 작으막하게나마 지부장실 및 회의실을 마련하여 1982년 1월 23일 이전해 왔다.

지부의 운영방침 및 진로

현 高昌永 지부장은 전대에 못다한 일들을 이어받아 이 지역회원을 위한 사명감을 충실히 이룩하고자 크게 4가지의 방침을 세워 실천에 옮겨가고 있다.

- 첫째 : 회원상호간의 일치단결
- 둘째 : 대외적인 유대를 평소에 강화하여 협회의 "Image" 부각 및 회원의 권익옹호
- 셋째 : 회원의 복리 증진 사업의 지적.
- 넷째 : 지역사회 발전의 적극적인 참여.

사업실적

이후의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인

천직할시 청사현상 설계등도가 있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부장을 위원장으로 일부 회원이 설계방향 및 추진계획을 밤새 수립하여 당선은 못하였으나 우리 회원이 참여하였다는 點에 의의가 있었다. 또한 인천시로부터 정화교육 및 건축행정 실무교육 등 다수의 회의 및 교육에 참여한 실적, 건축기술향상을 위한 책자발간 전국지부에서는 최초로 건축보조원·보조사 신분증 발급 및 교찬관리제도 실시, 군부대 위문을 통한 국군장병 위로, 설계도서의 질적향상과 권익옹호 및 장기적 측면에서 행정청의 심의 과정을 생략키 위하여 설계도서검사제 실시 건축분야 부조리척결대책의 일환으로 관청에서의 기초조사실시 이전의 지부 자체적 실시, 회원 결혼기념일을 축하하여 주는 의미에서 각 회원에게 기념품 증정, 건축사보수교육에 따른 전국회원 인천방문기념품 제작, '84전국 건축설계작품전을 인천에 유치한 사항,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각급학교 건축과에 재학생인 학생증 가정이 빈곤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 전달 등의 사업을 역경속에 펼치었다. 동사업을 투자하기까지는 총 57,472,340원이 소요되어 이중 내용을 보면 지부집행이 17,894,410원 이 지역회원의 성금이 39,577,930원으로서 작은수의 회원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분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또한 불철주야 노력을 경주한 결과의 소산이라고 보아야겠다. 이를 인정받아 인천직할시 金瓏會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하기 이르렀음은 실로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지역회원으로서는 고지부장의 노고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전자에도 언급이 있었다시피 인천에서의 특이할 사항으로서는 현재 건축사법까지 입법화가 된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와 관리를 각각 달리할 수 있도록 되었다. 이는 전국에서는 최초로 1983년 3월 2일부터 제도마련을 하여 시작하게 되어 전국에 확산된 밑거름이 되도록 한 업적은 인천지부의 자랑거리로 더 나아가 회원 전체의 자랑거리로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인천직할시는 수도권내라는 특

수성이 있어 인천지역회원이 단합하여 정상적인 건축사의 보수를 취득하려고 온갖 불무림을 쳐도 잘 성과가 나지 않는다. 인천은 특히 서울지부 및 경기지부가 인접되어 있어 설계비 "Dumping"의 침해가 극심하다. 매년 도서신고현황의 면적을 분석한 결과 2개 지부에서 이룩한 실적의 20%나 된다. 이중 3% 정도는 서울회원에게 연고가 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잔여 17%는 명의대여행위로 인한 "Dumping"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설계비 정상화를 이룩하지 못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하여 인천지부회원의 여망은 일정한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불가침 제도를 갈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문제를 본협회에서 연구검토하여 제도마련의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다.

이제 인천직할시지부는 탄생한지 4돛째 접어들었다. 타지부는 청년기로 접어들었다면 인천지부는 유아기로 표현할 수 있겠다. 회원수만 살펴보다도 당시 인천직할시 인구가 120만명에 대한 39명의 회원이었고, 현재 인구는 10만명이 증가한 130만명에 대한 회원수는 16명이 늘어난 55명에 이르렀다.

기타주요업무추진실적

전자에 언급한 내용의 사업을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천지역 발전을 위한 성금 기탁
2. 설계도서 검사제 실시
3. 전국에서는 최초로 교체감리 실시
4. 보조원, 보조사 수첩제작
5. 건축기술 향상을 위한 책자발간
6. 연말년시 국군장병 위로
7. 거리 질서 캠페인 실시
8.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운동 전개
9. 각급학교(고교, 전문대, 대학교) 건축공학도에 대한 장학금 지급.
10. 건축사보에 대한 정화교육 및 건축행정 실무교육 실시.
11. 자연보호 캠페인 실시 2건.

12. 회원 및 건축사보간의 친목체육대회 개최

13. 회원 상호친목단합대회 개최.

14. 회원상호 친목단합을 위한 바둑·장기대회 개최

15. 건축행정 민원상담실 운영.

16. 일간지를 통한 홍보

17. 자율정화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회원사무소 정비 강화

지부의 미래상

인천지부는 무언가 창의력으로 제반문제점 등을 연구개발하고자 적극적으로 약동하는 지부라 느끼게된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연륜이 짧은 인천직할시지부의 그간에 이룩한 주요사업실적은 대단하다.

지부설립이후 현재까지의 성장속도를 본다면 타지부의 오랜세월에 비하여 급성장한 것으로 사료된다. 바로 지금부터는 성장단계의 시발점으로 서해의 관문인 인천항을 두고 언젠가 국제적인 교역의 문이될 인천항도를 위하여 손색이 없는 국제적인 도시의 면모로 가꾸어 가야할 막대한 사명감을 지니고 건축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高昌永 지부장을 위시한 전회원과 직원이 호흡을 같이하는 가슴속의 고동이 컷가에 울려 내일의 발전으로 발돋움치고 있는 생동력에 가득찬 인천지부의 영원함을 빌면서…….

현 황

○위 치 : 인천직할시 남구 주안동 989-2(사무실. 전세, 면적 : 50평)

支部長 高昌永

○회 원 : 55名(從前 規程에 依한 2級 建築士 9人)

○임 원 : 지부장 1명
간 사 3명
감 사 2명

○대의원 : 4명

○정화위원 : 5명

○직 원 : 사무국장 1명
총무과장 1명
경 리 1명
서 무 1명